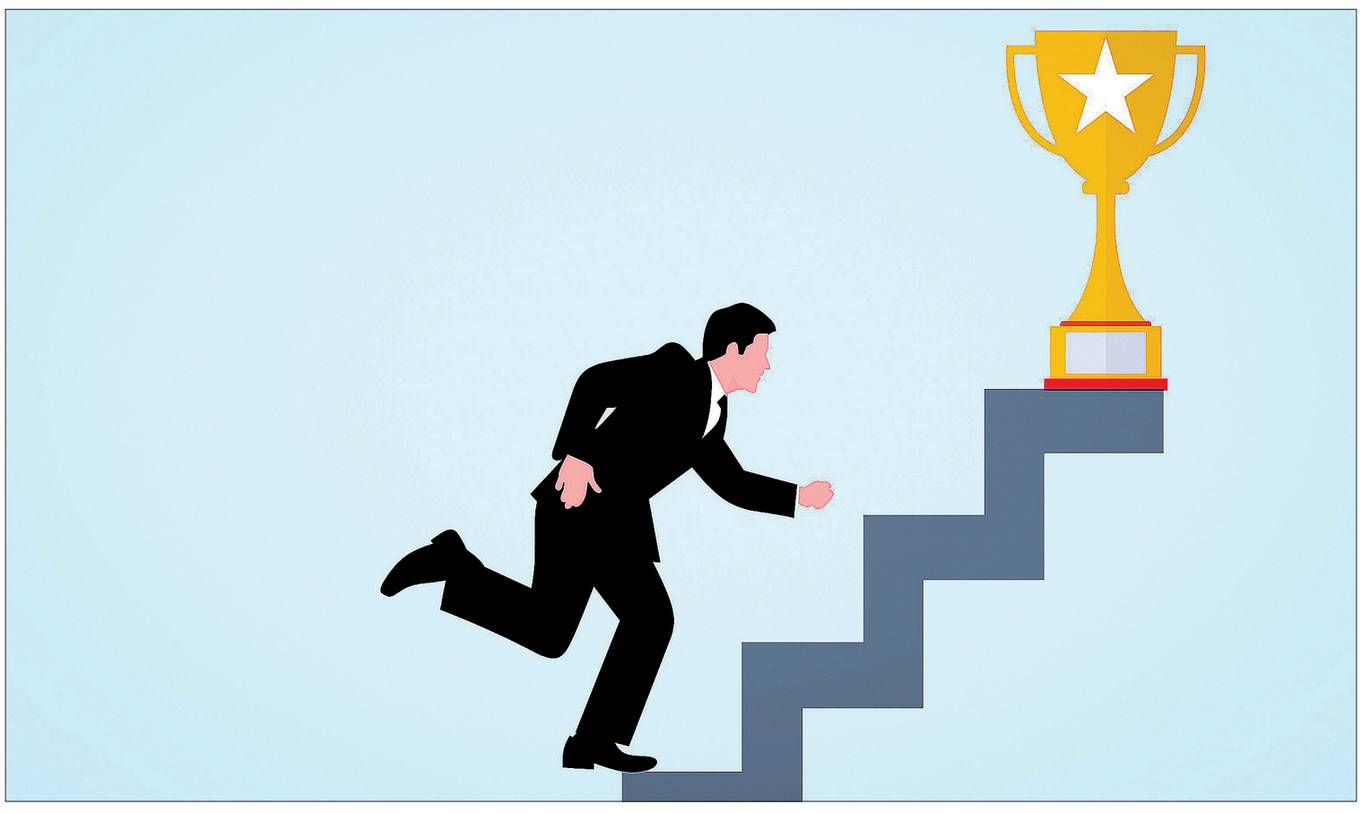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❼ 살림과 죽임



▶한줄 요약
타인의 실패가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경쟁사회는 죽임의 삶을 추구한다. 환경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 당신은 죽임꾼인가 살림꾼인가



###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다 아는 이솝우화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경주를 제안한다. 그래서 경주가 시작됐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잠을 잤지만 부지런한 거북이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 결국 승리했다는 내용이다. 이 우화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고, 또한 불리한 조건을 탓하지 말며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우화는 몇 가지 비판을 받는다. 잠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몰래 지나가는 그 거북이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우화는 교과서에 나올 만큼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화를 읽는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결국 '승리'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자리잡는다는 점이다. 결국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 '1등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은연중에 각인시키고 세뇌하는 우화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에서 상대가 실수를 하는 일은 잘된 일이다. 토끼가 잠을 자는 실수를 한 것은 거북이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된다. 경쟁에서 상대방의 실수, 실패는 나에게 승리이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깊이 각인됐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우리가 칭송하는 '거북이의 인내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는 '토끼의 실수' 때문이고, 그로 인해 거북이는 어부지리로 이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우화는 공동체의 이익, 남에 대한 배려, 사랑, 협동적인 가치와는 반대로 개인적 이익과 이해관계 속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인간의 사적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격려하는 우화인 것이다. 1960~1970년대 압축적 고도성장을 도모하던 경쟁사회 패러다임에서 자신의 열악한 조건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게 만드는 우화라는 것이다.

### 살림살이와 죽임살이

집에서 여성이 하는 일을 일본에서는 가사(家事)라고 한다. 영어로는 House-keeping 또는 House-hold라는 말을 쓴다. 모두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주부의 집안일을 '살림살이'라는 말을 쓴다.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이다. 단순히 밥 짓고 빨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두를 통틀어 '살리는 일'이라고 규정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살림'의 반대는 '죽임'이다.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은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부터 승부의 세계를 가르친다.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교육보다 '이기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는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화 됐다. 그래서 오로지 살아남는 일은 그 정점에 올라서는 일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경쟁적으로 입시를 치른다. 대학졸업 이후에는 더욱 치열한 취업경쟁이 있고 승진경쟁이 있다. 아니 더 촘촘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심리적인 경쟁들이 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쟁에서 정점에 올라서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보다는 지는 사람이 더 많다. 성취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패배의식과 좌절감, 열패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한 게임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한평생 많은 경쟁을 하게 된다.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해 온 '사회진화론'은 자연을 약육강식, 생존경쟁, 적자생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틀렸다는 것이 최근 자연과학자들의 말이다. 실제의 자연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 '상호의존'이 더욱 절대적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서로 짓밟고 이기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가 패배하는 사회이며,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을 심화 조장하는 사회이다.

### 경쟁사회, 죽임의 삶

우리말에 자주 쓰이는 말 중에는 기(氣)와 풍(風)이라는 말이 있다. '분위기(雰圍氣)를 살린다. 기운(氣運)을 북돋운다, 사기(士氣)를 높인다, 정기(精氣)를 세운다'라는 말로 쓰이며 특히 '기(氣)를 살린다. 기(氣)를 죽인다'는 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사용된다. 또한 학풍(學風), 교풍(校風), 가풍(家風)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기(氣)와 풍(風)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 작용하는 일정한 경향적 힘과 에너지를 말한다.

**타인의 실패가 기쁨되는 '경쟁'**
**경쟁 사회는 '죽임의 삶' 가까워**
**나·너 함께 사는 것은 순환의 삶**
**살림가치 세우는 사회 만들어야**

그러나 경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와 피해의식, 상처는 결국 사람들의 기(氣)를 죽게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기(氣)죽임'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살아도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심해지면 실제 물리적 죽음으로 비화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0년 10만명 당 25.7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2배이며 회원국 중 1위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정평이 나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도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9%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울증 환자 문제도 심각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기(氣) 죽임'의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인간의 죽임이 자연의 죽임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이러한 죽임은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과 국가도 이렇게 훈습된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곳이다. 10년 뒤의 이윤을 위해 1~2년간의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할 기업이 있을까?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이지만, 그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윤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 남보다 먼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풀고, 제한을 해제하여 국립공원과 자연을 개발하고 파헤치고 선점하고 이용하는 것이야 말로 생존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업에게 '자연보존, 환경보존'의 구호는 회사의 공익적 이미지를 만들어 상품판매가 잘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으로 한정될 뿐이다.

또한 정치는 20년, 50년 뒤의 장기적인 국가 설계보다, 4~5년간의 선거와 선거기간만 책임지며, 끊임없이 개발공약만 내세우는 정치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신이 당선이 되면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을 해제해 주겠다고 하고, 거대한 시설을 유치하고, 큰 개발권을 따내겠다고 공약을 한다. 환경보전을 주장하긴 하지만, 경제성장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표를 더 얻고 당선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에는 수많은 토건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토호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인간과 인간과의 죽임이, 인간이 자연을 죽여 나가는 관계로 확장돼 환경오염, 자연파괴로 이어진 것이다. 나아가 인간끼리의 죽임과 자연을 죽이는 관계가 결국 인간 개개인을 스스로 죽이는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죽임의 순환 고리, 죽임의 문화가 약한 고리인 환경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켜나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의 문화, 죽임의 사회를 살림의 가치가 흐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불교의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이다.

### 살림꾼은 누구인가

죽임의 가치는 주변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사회를 만든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게임에 이겼다고 해도 경쟁사회의 더 많은 게임 속에 자신도 밟히는 대상이 되며 결국 그 과정에서 패배와 피해의 상처를 입고 희생하게 된다.

그러나 살림의 가치는 모든 것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망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곧 연기(緣起)적 사고이자 인드라망적 사고이다. 그래서 결국 한 개인의 고통은 전체의 아픔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며, 이웃과 주변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해와 피해를 자청하는 것이다. 주변과 이웃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짧게 보면 자신에게 손해로 볼지 모르지만, 먼 시간으로 볼 때 그것은 타인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곧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희생하지만 결국 그러한 희생으로 자식들과 가정을 살리고 곧 자신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살림의 세계관에서 스스로 손해보고, 희생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주변을 살리며 시스템 전체를 살리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이타적인 것인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생기 넘치며 역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보라. 그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모임에 투여하고 아마도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임과 사람들에게 쓸 것이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욕도 많이 듣게 된다. 이렇듯 자신의 열정과 시간, 돈을 손해 보면서도 모임에 투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모임을 살리는 사람이며 모임 전체가 잘되는 것이 자신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살림꾼은 스스로 죽임을 자처하지만 오히려 전체를 살리면서 자신도 살린다.

내가 만지는 물건이 모두 황금이 되었던 미다스 왕처럼, 살림살이하는 살림꾼, 살림이스트는 만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상황마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살려내고 잘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당신은 죽임꾼인가, 살림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일일시호일

19년간 공장일 전전하다
뇌출혈로 죽음 문턱

미얀마 출신 양묘나잉씨 가족 부양 위해 한국행 택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병원비 4000만원 '막막'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